行 宗務委員 有感

每歲先鄕 享祀時 매세선향 향사 시에
委員總括 策任知 위원총괄 책임을 알며
宗人獻酌 無相忘 종인헌작에 잊을 수 없고
始祖焚香 有所思 시조님 분향 뜻이 깊고
至孝奉神 諸裔效 지효봉신 모든 후손 본받고
精誠禮畢 子孫宜 정성껏 예필 자손 떳떳하며
歸家作別 明年約 귀가 작별 내년 약속하고
亞父功臣 聖火期 아보공신 성화 다시 기약하네

〈관헌 권경웅〉

서울산악회 계사년 시산제

권영석 회장은 지난 3월 17일 관악산 기슭 아래에서 회원족친과 계사년 시산제를 올리고 단체기념 촬영 하였다.

서울산악회(회장 권영석)는 지난 3월 17일 오전10시 서울대입구 만남의 광장에서 회원50여명이 집결, 관악산 기슭 무너미고개 이르는 계곡에서 계사년(癸巳年)신년 초 시산제를 정오 시간을 기해 권정찬 부회장의 사회로 권영석 회장의 강신례(降神禮)로 부터 권오찬 감사의 초혼문(招魂文)을 고(告)하고 초헌례로 영석 회장이 첫잔을 헌작, 권오익 등산대장이 축관으로 축문을 고하며 초헌례를 행하였다.

이어 아헌례로 권충옥 고문, 종헌에 권오찬 감사 순으로 헌작되었다.

제례가 끝난 후 제례음복을 한 후 이날 계획 된 산행코스로 이동 무너미고개를 넘어 서울대수목원을 경유 안양예술공원 내 싸리골 식당으로 오후 3시가 조금 지난 시간 경 모두 도착되어 권경탁 사무국장의 결산보고와 오찬으로 앞써 영석 회장의 인사로 오늘 날씨마저 화창하여 금년한해도 회원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산행 간 무탈하시기를 기원 드다고 인사 후 축배제의로 권문(權門)의 산악회 건배제의 구호에 따라 '우리는 하나다' 라고 선. 재창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 계사년 신년 시산제를 모두 마쳤다.

이날 시산제를 위해 찬조한 단체는 대종원, 서울청년회, 마포종친회 등 각10만원과 개인으로는 충옥 고문, 영방, 정수 前회장, 영석 회장, 난희, 오익 등산대장, 혁구, 광현 족친 등이 찬조금을 표하였다. 이 외도 권종우 감사가 고사돼지머리 및 편육 권혁선 여성회원이 떡, 권영호 부회장이 기념타올 등을 제공하였다.

〈권범준 본원기자〉

대사성공수도종친회 제10차 정기총회

대사성공수도종친회 10차 정기총회에서 건배제의를 하고있다.

대사성공(諱 惇) 수도(서울·경기) 종친회(회장 권오실)는 지난 3월 9일 12시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웨딩홀부페」에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권승용 총무의 사회로 시조 태사공 및 파조단소에 대한 망배에 이어 권오실 회장은 인사말에서 종친회는 회를 구성하고 있는 족친간의 화합과 소통이 종중을 활성화하고 발전시킨다고 말하였다.

시대변화에 따라 우리민족의 전통적 종친회문화는 퇴색해가는 느낌이며 이러한 때 대사성공수도종친회는 「안동권씨종시「宗是」의 정신아래 전종인의 단합된 힘을 보여야한다. 세상이 아무리 개혁되어도 종친회는 인륜의 도리이기 때문에 지속 발전되어야 하며 따라서 종친회의 발전여부는 족친들의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권명준대사성공종회장은 종친회 운영은 쉬운 일이 아니며 수도종친회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았다고 말하고 조상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진정한 실천이념은 후손들이 육성하고 단합하는 것이 조상님을 위한 것이다. 안동권씨의 역사는 천년이 넘는데 그중에서도 강릉에서 잘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거듭 나날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권승옥 전 대사성공종회장은 격려사에서 대사성공 후예들이 수도권에 많이 있으며 숭조사상을 위해 이바지하고 지금 수도종친회를 잘 이끌어 주었으며 회장님께 잘 얘기해 주셔서 인사를 대신하고 고개 숙여서 모든 가정에 행운과 건강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다음 권영만 고문은 지난해 강릉 통일안보공원에 부친 故 권태순 장군 동상제막식에 일가 여러분이 많이 참석해 추모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를 하였다.

이어서 권승용총무의 경과보고 권영상감사의 감사보고, 2012년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기타토의 후 회의를 마치고 오찬에 들어가 권오실 회장의 건배제의로 내일은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며 산회했다.

〈권승용 총무〉

부산천등회(釜山 天燈會)월례회

부산천등회는 지난3월10일 오전12시 진해시 제덕동 권태현 천등회장댁에서 3월 월례회를 회원 및 일족 33명 참석하에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권태현회장 초청으로 권성용부회장 차주선으로 종친회관앞에서 10시30분에 출발 11시30분에 도착하여 여러분의 주선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오골계 및 통닭 17마리를 잡아 중식으로 술과 안주를 장만하여 회의를 권임호 총무의 진행으로 선조님께 묵념을 시작으로 특히 이날은 종친회 명예회장 권재목씨의 희수(喜壽77세)를 맞이하여 떡 2박스와 박카스 2박스를 제공 받아 축하 건배로 첫잔은 원로회원 권경봉씨 두번째잔으로 종친회 명예회장 권재목씨 셋째잔으로 전부녀회장 권숙이씨가 건배제의로 축하를 하였고 이날 중식은 푸짐한 안주와 술로서 점심식사를 한 후 돌아오는 길에 거제 포로수용소를 관람하였는데 거제시장 권민호씨의 주선으로 해설사(이창호)를 보내주어 좋은 관람과 그당시의 생활모습을 되새겨보았다.

(권재혁국장)

안동권씨복야공파강목계회 정기총회

복야공파 강목계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안동권씨복야공파강목계회(회장 : 權肅度)는 지난 3월 8일(금) 안동시 태화동 소재 장자방식당에서 권헌성(權憲成), 권오수(權五秀) 고문(顧問)을 비롯한 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권오주(權五柱) 총무의 사회로 개회선언, 국기에 대한 경례, 시조묘소 망배, 열선조에 대한 묵념, 상읍례에 이어 회장의 간단한 인사가 있었다. 총무의 경과보고에 이어 기타토의 순으로 족의(族誼)를 돈독(敦篤)히 하는 좋은 기회(機會)가 되었다.

강목계회(講睦稧會)는 19세(世) 금계공(琴溪公) 휘(諱) 사영(士英) 계열(系列)의 계보(系譜)를 발간하여 반질(頒帙)하고 그 잉여금(剩餘金)을 모체로 1968(戊申)년에 발족되었다. 강목계회(講睦稧會) 회원은 주손(冑孫)인 교수공(敎授公) 휘(諱) 응정(應禎) 선조(先祖)의 후손을 비롯한 7개 문중(門中) 후손들로 조직되었다. 그 후 1974(甲寅)년에 금계공(琴溪公)의 25세손(世孫)이고 한학자(漢學者)인 만림공(晩林公) 휘(諱) 정일(正鎰)선생이 숭조이념(崇祖理念)을 확립하고 애족사상(愛族思想)을 고취(鼓吹)하며 족의(族誼)를 돈독(敦篤)히 하는 뜻을 담은 서문(序文)을 작성하고 회칙을 만들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발족한지 45년째를 맞는 강목계회(講睦稧會)는 그간 회원 수가 수백 명에 가까웠으나 유명(幽冥)을 달리한 회원이 많아 현재에는 80여명의 회원으로 매년 음력 정월 27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대종원 보도부장 권영건〉

권영세 안동시장

2014년 국가예산확보 대책 보고회

권영세 안동시장은 지난 18일 2014년 국가예산 확보 대책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국가예산확보에 나섰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국가시행산업인 중앙선복선 전철사업을 비롯해 모두 64건의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각 부서별 추진상황과 향후 활동계획을 보고하고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날 보고된 주요 현안사업으로 신규사업은 국가백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50억원, 용산~교리간 국도대체우회도로 300억, 산림문화 휴양촌조성 63억원, 시립도서관 옥동분관 건립 33억원 등 15건에 578억원이다.

계속사업으로는 3대문화권 874억원, 도청이전신도시 진입도로 개설 445억원, 와룡~법전간 국도 4차로 확장 200억원, 순환형 매립지사업 45억원, 하수관거사업 88억원, 천지재해위험지구사업 54억원 등 41건에 1,841억원이다.

국가시행사업은 중앙선복선전철화사업 6,000억원, 동서4축 고속도로 9,5000억원, 기계~안동 국도 4차로 확장 1,200억원 등 8건에 1조7,676억원으로 금년도에 민간투자 부분까지 포함된 국가예산 확보에 1조3천억원보다 35% 증액된 총 64건에 2조 95억원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설정해 보고했다.

또한 안동시는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3~5월까지 수시로 경북도·중앙부처를 방문해 서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설득을 통하여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6월부터 9월까지는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시(市)사업들이 정부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논리를 펼쳐나갈 계획이다.

〈안동향우신문, 2013, 2, 28, 인용〉

贈 議政府右議政 花山府院君 諱 復

증 의정부 우의정 화산부원군 휘 복

■ 權貞澤 花山府院君宗會長 成均館 典儀

〈지난호에 이어〉

공이 6월 5일에 졸한지 달수로 넉달 만이고 이때에야 공의 영구가 장지에 도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공의 영구가 장지인 장단군 진동면 하포리 현암에 바로 도착하지 않고 서울의 본가로 와서 빈소를 차리고 부녀 등 전체 상복인喪服人 이 함께 하는 발상거애發喪擧哀를 한 다음 임금의 사제를 받고 백관 및 친지의 조상도 받았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보면 공은 5월장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예제의 경대부는 3월장을 하게 되어 있지만 사정에 따라 이것이 연장된 경우가 있으며 유월장逾月藏의 경우만 두 달에 걸치고 짝수의 달이 되는 4월이나 6월장은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사제의 기사는 다음과 같다.

사제우강계절제사권복賜祭于江界節制使權復 기문왈其文曰 군신지간君臣之間 생칙독어은의生則篤於恩義 사칙비기애영死則備其哀榮 차고금지상전야此古今之常典也 유경품자웅위惟卿稟資雄偉 조행충근操行忠勤 조등연방早登連榜 우첩무예又捷武藝 호위양장號爲良將 탁거숙위지사擢居宿衛之士 경자전구頃者塡具 구아변혼具我邊痕 비수부왈지위俾授付曰之偉 익자간성지중益資干城之重 부하일석엄이불숙夫何一夕奄爾不淑 수단지기수천소정修短之期雖天所定 경지운명실출의卿之殞命實出意外 부음지지비애배상訃音之至悲哀培常 즉령추증숭질즉수追贈崇秩 겸치부의兼治賻義 차명예관팽진박전且命禮官彭陳薄奠 자휼전지특가위玆恤典之特加慰 영혼지불매英魂之不昧 영기유지靈其有知 음차일상飮此一觴

강계절제사 권복에게 제사를 내렸다. 그 제문에 이르기를 임금과 신하의 사이는. 살아서는 은혜와 의리를 도타이하고 죽어서는 그 애처로워함과 영광되게 함을 같추는 바인즉 예나 지금이 같은 떳떳한 전범이다. 헤아리건대 경은 타고난 자질이 웅위하고 마음을 잡아 행하는바가 충성스럽고 근면하여 일찍이 소과에 오르고 도한 무예로 급제하여 좋은 장수로 불리면서 숙위의 장사로 발탁 되었는데 지난번에 털가죽옷의 오랑캐가 우리의 변경의 트 짚을 일으키므로 부월의 무서움을 주어 위엄을 보이게 하니 더욱 간성의 무서움에 도움에 도우미 되었는데 어찌하여 하루 저녁에 문득 맑지가 못하게 되었단 말인가. 수한이 길고 짧은 것은 비록 하늘이 정한바라 하여도 경의 운명은 실로 의외로 나은 바라 부음이 이르자 비애가 평소의 갑절인지라 곧 직지를 높여 추증케 하고 겸하여 부의케 이었으며 또한 예관에게 명하여 박 한전을 베풀게 하였으니 이는 진홀하는 은전을 특별히 더하여 위로하는 것이다. 명한 혼령이 어둡지 아니하고 영혼이 아는바가 있거든 이 한잔에 술을 음향 하라 하였다.

이 제문에서 임금이 공더러 일찍 등과하였다고 하였으니 20세 전후에 약관에 공이 과거를 한 것을 말하고 있다. 특히 연방에 올라다 하였으니 이는 소과를 한 것인데 그것이 생원과 진사를 뽑는 사마시였는지는 확실치 않다. 생원·진사를 뽑는 양시는 세종 말엽부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니 공이 태종조의 무과로 출사하였는데 사마시를 하였을 수는 없다. 조선초기에는 사마시가 없고 대과에서 갑을 병 삼과 외에 정과가 있어 여기의 진사로서 소수를 급제하였는데 대과이지 소과가 아니었다. 정과는 우수자를 선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면 문과를 위한 예비시험 격인 초시에 등제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조선시대의 속칭 소과에는 초시初試·회시會試·생원生員·진사進士의 구별이 있었다는 게 매천야록梅泉野錄등의 통설이다. 어쨌든 공이 연방에 올랐다 하였으니 소과를 먼저 하였고 그 다음에 무과를 하여 급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제문에서 첩무예捷武藝라 한 바에 첩은 과거의 급제 한다는 뜻이 있고 무예는 무과가 무예 의를 줄인 말이니 무예 또한 무과와 같은 뜻이다.

다음에 공에 운명을 일컬어 일석에 불숙해 졌다 하였으니 일석은 일조와 같은 말인데 일조는 하루아침으로서 광명에 어떤 일이 발생함을 뜻하고 일석은 하루저녁으로서 야음에 어떤일이 일어났음을 뜻한다. 따라서 공이 낙석의 변을 당한 것이 낮이 아닌 야음중이 아니었을까도 생각된다.

이렇게 공이 졸하고부터 20년이 지난 세조世祖 1년 1456년 9월 5일 정축일조에 실록의 공의 삼남 화천군花川君 양효공襄孝公 공恭이 좌익공신佐翼功臣에 록정錄定되는 기사가 나온다. 화천군이 받은 것은 좌익공신佐翼功臣 3等으로 공신 호는 추충좌익공신追忠佐翼功臣이다. 그리고 3년 뒤 세조 4년 1458년 6월 29일에 좌익공신에 대한 교서를 반포하였다. 그 교서에 화천군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략 다음과 같다.

교권공왈敎權恭曰 주중기상周重旗常 소이기어비적所以紀於丕積 내용답호원훈乃用荅乎元勳 사책훈위좌익삼등공신肆策勳爲佐翼三等功臣 작기부모爵其父母 유급영세宥及永世 잉사전팔십결仍賜田八十結 노비팔구奴婢八口 백은삼십오량白銀三十五梁 표리일단表理一段 내구마일필內廐馬一匹 지가령야至可領也 어희군신일심於戱君臣一心 기영보어홍업期永保於洪業 자손만세子孫萬世 서무망어금휴誓無忘於今休 ; 권공에게 규명하여 이르기를 주나라는 교통과 일월을 그린 왕후의 깃발을 무겁게 하여 커다란 업적을 기리는 까닭으로 하고 한나라는 황하가 띠같이 마르고 태산이 닭아 없어질 때까지로 맹세하여 이로서 으뜸의 공훈에 보답하였는바… 이에 좌익3공신으로 책훈하여 그 부모에게 작위를 주고 벌주지 않은 것이 후손 영세의 미치게 하며 인하여 전답 80결과 노비 8구에 백은 35량 겉옷과 속옷을 갖춘 1습 왕실 내에서 기른 말 1필을 하사하니 이르거든 영수할지어다.

〈다음호에 계속〉

안동권씨족도(安東權氏族圖)

비단필사 15세기 중반

◙ 최 순 권 (국립민속박물관학예연구관)

〈지난호에 이어〉

▣제작시기

족도는 단순하게 출생순으로 자녀를 구분하고 직함 및 성명만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에 나오는 인물이나 직함을 통해서 대략적인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즉 여기에 기재된 직함의 경우 일반적으로 최후, 또는 최고의 직함이나 직역을 표시하기 때문에, 그 인물의 생몰 및 역임 시기를 통해서 그 제작 시기를 유추할 수 있다.

먼저 이 족도에서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현덕왕후와 단종이다. 이 족도에 현덕왕후와 단종의 위치를 표시한 부첨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육신 사건 이후에 떼어낸 것으로 추정된다. 현덕왕후의 경우, 조선시대에 유일한 안동권씨 출신의 왕비임에도 불구하고,1476년에 제작된 '안동권씨성화보' 에는 누락되어 있다. 이들의 외가인 권여온 및 권백종의 가계 일부가 '안동권씨성화보' 에 기재되어 있지만, 이들 왕과 왕비가 누락된 것은 이들이 사육신 사건으로 폐위되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문종 비 현덕왕후 권씨는 그녀의 할아버지 권백종이 조모부祖母父인 권여은의 사위로 등재되는데 그치고, 외할아버지 최용은 보이지 않는다.

현덕왕후 권씨는 문종이 즉위하면서 왕비로 추승되었으니 1457년에 현억왕후 권씨의 어미 아지阿只와 그 동생 권자신이 모반하다가 죽임을 당하였는데, 그 아비 권전은 이미 추후하여 폐해서 서인이 되었습니다. 또 노산군이 종사에 죄를 지어 이미 군으로 강봉 하였는데, 그 어미는 아직도 명위를 보존하고 있으니, 추후하여 폐해서 서인으로 만들고 개장孩葬하길 청합니다".라는 의정부 건의로 폐위되었다. 그 후에 현덕왕후는 1531년(중종8)에 문종 릉인 형릉에 합장되고, 1699년(숙종25)에 신원되었다.

그리고 단종은 1452년에 왕위에 올랐지만, 사육신사건으로 1456년에 노산군魯山君, 서인庶人으로 강봉되어 마침내 죽음을 당하였다.

〈다음호에 계속〉